

다시 푸는 경서

42장경

(서) 世尊成道已 作是思惟 世尊成道이 작시사유 離欲寂靜 是最爲勝 離欲寂靜 是最爲勝 이욕적정 시최위승 住大禪定 降諸魔道 住대선정 함제마도 於鹿野苑中 轉四諦法輪 於鹿野苑中 轉四諦法輪 어록야원중 전사제법륜 度阿羅漢如五人 而證道果 度阿羅漢如五人 而證道果 도교진여등오인 이증도과 復有比丘 所說諸疑 求佛進止 復有比丘 所說諸疑 求佛進止 부유비구 소설제의 구분진지 世尊教勅 一開悟 世尊教勅 一開悟 세존교칙 일일개오 舍掌敬諾 而順導師 舍掌敬諾 而順導師 함장경나 이순존칙

세존께서는 진리를 깨치고 나서 이렇게 생각하셨다. '모든 욕심을 여의어 고요하고 고요 하니 이것이 가장 으뜸이로다.'

爲四眞道行 成阿羅漢 爲四眞道行 成阿羅漢 위사진도행 성아라한 阿羅漢者 能飛行變化 曠劫壽命 住動 아라한자 능비행변화 광겁수명 주동 天地 天地 천지 次爲阿那含 阿那含者 壽終魂靈上十 次爲阿那含 阿那含者 壽終魂靈上十 차위아나한 아나한자 수종혼령상십 九天 證阿羅漢 九天 證阿羅漢 구천 증아라한 次爲斯陀含 斯陀含者 一上一還 卽得 次爲斯陀含 斯陀含者 一上一還 卽得 차위스다함 사다함자 일상일환 즉득 阿羅漢 阿羅漢 아라한 次爲須陀洹 須陀洹者 七死七生 便得 次爲須陀洹 須陀洹者 七死七生 便得 차위수다인 수다인자 칠사칠생 변득 阿羅漢 阿羅漢 아라한 愛欲斷者 譬如四肢斷 不復用之 愛欲斷者 譬如四肢斷 不復用之 애욕단자 비여사지단 불부용지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세존께서는 법을 설하사
의문마다 일일이 깨우치게 하시니

세존께서는 대선정에 들어 모든 마구니도를 항복 받으시고는 녹야원에서 사성제의 법문을 굴러서 교진여 등 다섯 비구를 제도하시니 이들이 아라한과를 증득했다.

비구들이 여러 의문점에 대해 다시 물어오며 세존께서는 법을 설하사 의문마다 일일이 깨우치게 하시니 그들이 모두 합장하고 경건히 받들어 세존의 가르침을 따르게 되었다.

(1) (佛言) 辭親出家 識心達本 解無爲法 (불언) 사친출가 식심달본 해무위법 名曰沙門 名曰沙門 명일사문 常行二百五十戒 進志清淨 常行二百五十戒 進志清淨 상행이백오십계 진지청정 龍眼

42장경이란 (사십이장경)은 8만4천 법문이라는 방대한 부처님의 가르침을 여러 경전에서 선택해 42장으로 간결하게 정리해 놓은 경전이다. 특히 일상의 수행에서 중요한 덕목을 간추려 놓았다해서 산가에서는 근본불교의 사상을 대변하는 <유교경> <위산경책>과 더불어 '불조삼경(佛祖三經)'의 하나로 꼽는다. 그만큼 불교의 핵심적인 교리를 잘 아우르고 있어 입문서로도 널리 애독돼 왔다. A.D 67년경 인도의 가섭마등(迦葉摩騰)과 축법란(竺法蘭)이 당시의 황제

'혈연을 끊고 출가하여 마음자리를 요달해 무위법을 깨달아야 사문이라 할 것이다.'

항상 250계를 지키고 그 뜻을 청정하게 지켜 나아가면서 사성제의 도리를 수행하면 아라한이 된다.

아라한이란 시·공의 변화를 뛰어넘어 능히 자유자재로이 천지간에 나눌 수 있는 경지에 머문다.

그 말이 아나함이니 아나함이란 금생에 몸이 떨어지면 마음이 19천에 올라 거기서 아라한이 되는 경지이다.

그 말이 사다함이니 사다함이란 한번 삼천세계에 들었다가 인간세계로 되돌아와 아라한이 되는 경지이다.

그 다음이 수다원이니 일곱생을 다시 태어나서 아라한이 된다.

인 효명제(孝明帝)의 보호 아래 번역한 중국 최초의 한역경전으로, 불교의 근본정신을 잘 담고 있어 이본(異本)도 약 10여종에 이른다.

이 경전은 아함의 내용을 가장 많이 담고 있으며, 잡아함이나 <법구경>과도 같은 경정의 성격과 띠고 있다. 그러나 고(苦)·무상(無常)·무아(無我)·애욕의 단절 등 자기 다스림 뿐만 아니라, 자비와 인욕의 실천, 보시의 권장과 참회의 강조 등 대중적인 요소들도 모두 갖추고 있어 매우 교훈적인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

법인스님 (각원사 주지)

아침 저녁으로 저법 쌀쌀하죠. 덕분에 달갑지 않은 감기로 고생하고 있는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콧물 건강하게 유지되는 것은 살아가는 데 있어 매우 보람이 있는 일입니다. 건강해야만 내일을 기약할 수 있고, 남을 배려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바로 육체가 건강하면 정신도 건강하여 정사를 올바르게 관발할 수 있고 이웃의 어려운 사정에도 눈을 돌리게 되어 무엇인가 할 수 있는 것이지요.

서산스님이 장수하신 애길 좀 할까요. 1520년(중종 15)에 출생해서 1804년(선조 37)에 열반하셨으니 85세의 생애를 사셨지요. 그 당시 85세까지 사셨던 것도 희유한 일이지만 오늘날과 비교해도 대단히 장수하신 셈이지요.

나는 6.25 사변을 겪으면서 부처님 전에 엎드려 기도를 하며 '70세까지 살게 하여 주신다면 남은 생을 부처님을 시봉하는 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라는 서원을 지내왔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20대 30대 40대 50대를 거쳐왔는데, 내가 서산스님의 <선가귀감> 연구로 57세 되던 1987년 3월25일 일본에서 문학박사 학위를 받은 날을 계기로 마음이 조금 변해 버렸습니다. 지금으로부터 4~5세기 전 음식이나 의료시설 모든게 뒤떨어진 때에 서산스님께서도 85세를 사셨는데 하는 마음에 70세에서 85세로 생을 15년을 돌려버렸습니다.

여러 불자님들도 80살은 모두 넘기셔야 합니다. 60세까지는 자신과 가정을 위해 열심히 살고 그 후 20년 동안은 가정 생활에서 벗어나 걸림없는 자세로 불교를 보다 많은 사람에게 홍보하고,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이땅의 이웃을 위해 봉사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70인생을 살아오는 동안 공부에 전념해 왔습니다. 그러다보니 국내 최대 규모의 대웅보전을 갖춘 각원사 불사도 하게 되었습니다. 앞서 말씀 드린 것처럼 60세까지는 내 개인 공부를 위해 노력했다면 이제는 남북통일과 남북동포들을 위한 기도와 회향으로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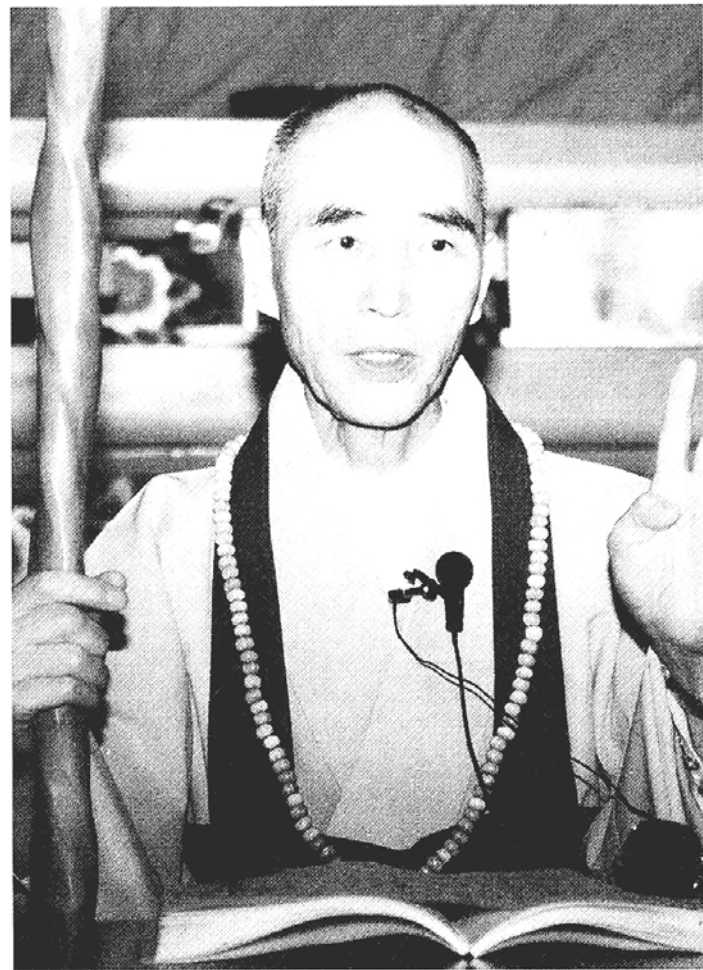
이제 입시철입니다. 대학입시, 직장고시... 모두들 마음이 불안하고 조금씩 떨릴 겁니다. 공부가 인생의 전부일 수 없지만 인생을 충실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공부라는 방편이 무엇보다 필요하고 중요하다고 봅니다. 대학이든 직장이든 그리고 부처님 법을 공부하는 불자님들 이젠 오늘 내가 하는 이야기를 듣고 용기를 얻어 각자 공부에 전념해 주길 바랍니다. 나는 50여 년전 단장을 주무시는 어머

니를 두고 새벽길을 재촉해 출가했습니

다. 타고난 명이 짧아 출가를 하게 좋겠다는 데에는 어머니와 이견이 없었지만 어머니는 '대처승'이 되길 바라셨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럴 수 없다고 생각하고 말리시는 어머니의 의견을 못따르는 죄송함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을 때였는데 탁발을 온 어느 노스님이 내게 남긴 말씀이 있습니다. "출가란 부처님의 법을 배우고 닦아 도를 이루려는 것이다. 도를 이룬다는 것은 내가 부처가 되어 여러 중생을 건진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에는 도력이 높은 큰스님들이 많으니 출가를 하려거든 제대로 하고 공부도 제대로 해야 한다. 그러니 너도 출가를 하려거든 제대로 출가를 하거라." 그 노스님의 '제대로'라는 말이 아직 귓가에 생생합니다. 요즘 말로 놀이든 공부든 '회근하게 하라'는 말씀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 공부에 대한 원(願)을 한 번

- 1931년 경남 홍주 생
- 46년 해인사에서 득도
- 마산공고를 나와 해인대학, 동국대, 성균관대 졸업
- 87년 일본 대동문화대학 문학 박사학위 취득
- 현 천안 각원사, 동경 명월사 주지
- 논문집 <서산대사의 선가귀감 연구> 등 다수



천가지 경과 만가지 이론
모조리 통달했다 하더라도
실천안하면 소용없어요

새워 봅시다. 공부를 잘해서 무엇이 된다 것은 처우의 문제입니다. 공부해서 좋은 대학과 직장에 들어가는 것이 분명 인생의 전부야 아닐지 몰라도 대학에 들어가야 하고, 직장에 들어가야 하는 지금의 여러분들에게 공부만이 살길이라고 믿고 열심히 보십시오. 부처님 법을 공부하는 불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출가했을 때는 학생복을 입고 학교를 다니는 젊은 학생들에게 대해서는 아주 무시하거나 비판적인 시선이었습니

다. 그러나 그 때 나는 성불은 가부좌 틀고 앉아만 있는다고 해서 되는게 아니라 믿고 있었기에 공부해야 되겠다는 결심을 굳힐 수가 있었습니다. 지해도 지식에서 비롯된다고 생각합니다. 많이 배우는 가운데 싹튼다고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한 겨울 천막하루에 의자에 책을 보기도 했고, 쌀 방을 찾아 한 해에도 수십 번씩 집을 싸야 했지만 공부에 매달렸던 지난날들이 지금에도 참으로 보람되게 생각됩니다. 불가에서 부처님은 '통막대기'라니,

경전을 읽지 않고서도 자신의 본마음을 깨치면 부처가 될 수 있다는 '불립문자 경성성불(不立文字 見性成佛)'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번 한 번 생각해 보십시오. 공부없이 가부좌 틀고 명복한다고 해서, 또 목탁 요령 들고 염불 독경한다고 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8만4천의 부처님 말씀을 알 수 있었습니까? 선사들의 '할' 소리에 단박에 깨침을 얻을 수 있는 근거가 수승한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었느냐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다른 동물과 달리 '교육적 학문'을 통해서만 본연의 불성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도를 이루신 후 45년간 인도 각지를 돌아다니면서 설법하신 가르침은 그저 조용하게 앉아 지내 기간 하면 모든 일이 어렵하게 된다는 가르침이 아닌 것입니다. 자업자득(自業自得)이라는 말과 같이 모든 것은 각자가 행(行)·주(住)·좌(坐)·와(臥)·어(語)·묵(默)·동(動)·정(靜)의 일상생활에서 노력하여 맘을 출린 것 만큼 소

송월주 총무원장 스님의 3선 출마에 관한 입장

17중정세하의 권위를 훼손한 총무원장 스님은 3선 출마의 자격이 없습니다.

윗사람에 대한 공격이나 예외는 시대를 초월한 금과옥조입니다. 승승을 떠나 건강한 사회를 받쳐주는 버팀목이라 할 수 있겠지요. 그것은 법 이전에 지켜야 할 도덕적 가치로서 논란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을 자명한 일이라 할 것입니다.

조계종단의 중정은 종단의 최고 어른이며 모든 종도들의 정신적 지주이고 상징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조계종단의 중풍과 중맥은 중정예하의 중지로 이어가고 있으며 이는 중헌 제19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총무원법 제 4조에서는 집행부와 총무원장은 중정예하에 대한 법다운 예외와 하교의 내용을 중무에 반영하여야 한다는 점을 적시하고 있습니다. 중정예하에서 직접 중무에 관여하지는 않지만 조계종단의 종도라면 각별한 예우로 최고 어른을 모셔야 한다는 뜻이겠지요.

하지만 논란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이 금과옥조가 깨어지고 있습니다.

1997년 3월 10일 중정예하에서 사의표명을 하였습니다. 중정예하의 뜻이 중무행정에 반영되지 않아 이를 여러 번에 걸쳐 총무원장 스님에게 당부하였으나 지켜지지 않았기에 예하에서 사의표명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한 집행부와 총무원장 스님은 개혁의지의 실증을 계고하고 질책하기 위한 중정예하의 사의표명을 단순한 중정권한에 대한 불만인 것처럼 왜곡하여 언론에 유포함으로써 중정예하의 권위를 실추시키는 불경을 저지른 것입니다. 또한 사의표명을 한 중정예하에 대한 천견의 예를 회피하다 종도들의 비난이 거세져 마지못해 친견하러 거절당하는 우를 범하였던 사의를 표명한 원로회의에 부당한 간섭으로 사의표명 반례를 강요하는 무례를 저지르기도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불기 2541년과 2542년의 부처님 오신날 법어가 없는 봉축행사를 치르는 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지도록 방치하였습니다. 이는 종단의 최고 어른의 뜻을 받들지 않는 독단, 독주행정의 한 반증이라 할 것입니다.

잘 잘못의 책임은 언제나 당사자에게 귀속되는 법. 현 총무원장 송월주스님은 어른으로서 대접받을 자격을 상실하였습니다. 중정예하에 대한 예우를 다하지 않은 승단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회화를 저해하는 파계행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견에 눈이 멀어 또 다시 다음 4년을 획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총무원장스님의 중견에 대한 욕심과 반개혁적이고 부도덕한 행위를 사부대중에게 고발하며 불교의 미래를 위하여 구법의 길로 나설 것임을 만천하에 천명하고자 합니다.

27 파사현청 새총구법의 일념으로 송월주원장 스님의 3선출마 강행을 반대합니다.

최근 29대 조계종 총무원장 선거를 앞두고 '3선 출마'라는 말이 회자되고 있으며 마치 94년 서의현 전원장의 불행했던 역사를 기억하게 하는 듯한 상황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여러 가지로 부족하지만 나름대로 우리 학인들의 견해를 밝히고 원로대덕스님들의 고견을 듣고자 합니다.

전종도들의 피눈물과 학인들의 뜨거운 구중열정으로 출범한 현 개혁총무원회는 우리 학인들에게 많은 기대와 희망을 갖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학인 선배들의 죽음을 각오한 구중열기로 이루어진 현 집행부는 종단발전과 개혁을 위해 속시원한 총무원장을 전개하지 못하였습니다. 어느 원로의원스님께서도 (크게 잘하지 못했고 그렇다고 크게 못했도 없다. 그러나 이제 다른 사람에게 기회를 주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원로의원스님의 지적처럼 학인들의 바람은 과거 구중의 단식을 결행했던 마음으로 돌아가 현 원장스님의 결단으로 소모적인 논쟁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개혁회의 입법취지는 중견의 장기집권과 독주방지라는 취지에서 만들어 졌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므로 현 중헌의 해석을 놓고 논란이 진행되는 것에 대하여 중정예하에서 또는 원로회의의 원로스님들이 결정하여 주시면 불필요한 소모적 논쟁을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종단 원로대덕스님들의 교시 이전에 현 송월주총무원장스님이 탐진치 삼독을 버리는 출가수행자의 본연의 자세를 갖는다면 더할 나위가 없을 것입니다.

또한 현 총무원과 '총무원장 3선출마 반대'를 위한 범불교계 연대회의에서 제시한 변호사들의 세간법적 해석도 해석의 입장에 따라 논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거 불행했던 정화시대의 소모적인 승사의 악동처럼 세간법적 해석은 뒤로 승거결단으로 종단안정과 화합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학인들의 이러한 순수한 발원과 입장에 불구하고 개혁회의 이후 직위와 재력을 바탕으로 한 일부 권승들에 의해 종단이 분열과 혼란으로 돌변할 위기에 있다면 학인들은 결코 좌시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학인들은 중헌중법을 거스리고 3선강행을 기도하여 송월주스님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후보추대위는 참회하고 활동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합니다. 중헌중법을 어기면서까지 얻으려는 권력탐닉은 불법에 어긋나고 종단의 화합을 파괴하는 행위라는 것을 천명합니다.